

광주은행 지역 환원 물건너 가나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통매각'으로 가다

내일 공식발표 앞두고 지역 상공인들 허탈

광주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지역 상공인들이 추진해왔던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이 물거품될 전망이다. 광주상회가 바랐던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이 아닌 통째로 매각하는 통매각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56.97%의 매각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할매각보다는 통째로 매각하는 통매각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입찰 장벽을 낮춰 KDB산은금융지주 등 다른 금융지주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지주사가 타 금융지주를 인수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사들여야만 했던 기존 금융지주법 시행령을 고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인수 비율을 50% 정도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지주사들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지분 56.9%에다가 경영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인수후보로는 산은금융지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매각 방식은 통매각으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광주·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와 지주사를 한꺼번에 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방식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회사 분리 등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공적자금 조기에 회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자산 500조원 이상의 '메가뱅크'(초대형은행)가 탄생할 수

있어 국내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메가뱅크 구상과 맞물려 광주은행의 통매각 쪽으로 방향이 기울면서 분리매각을 요구해왔던 광주상의 등 지역 상공인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전원복 광주상의 상임부회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금융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사회공헌활동에는 지방은행이 역할을 한다"며 "메가뱅크에 사로잡혀 통매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은행 육성과 시중은행을 유지한 채 매각 방식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광주은행 출자자협의회'를 구성해 광주은행 매각 입찰에 참여했다. 광주상의는 협의회를 유지한 채 매각 방식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가족, 연인들이 장미원에서 추억만들기를 하고 있다. <에버랜드 제공>

"에버랜드 1억송이 장미축제에 초대합니다"

에버랜드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12일 까지 한 달여간 '장미축제'를 펼친다.

국내 꽃 축제의 효시 격인 장미축제는 지난 1985년 첫 시작 후 총 1억송이가 넘는 장미를 심는 등 많은 연인과 가족들에게 추억을 남기며 명성을 잇고 있다.

올 장미축제에는 총 850종, 100만송이 장미를 선보이는데 빅토리아 정원·비너스 정원, 미로 정원, 큐피드 정원 등 4개 테마파크로 구성된 '로즈 가든'을 중심으로 장미축제가 펼쳐진다.

또한 1000개가 넘는 장미 화분을 별도 비치해 파크 전체에 장미 향기가 가득하다.

특히 올 축제에는 '사랑'을 테마로 만든 하트 모양의 '토피어리(Topiary, 꽃과 식물을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을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든 작품)제작해 많은 연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국세청, 근로장려금 홍보 총력

광주지방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수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만 지급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미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 상담 확인 후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이상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부주택이거나 기혼자가 5000만원 미만 주택 소유, ▲총재산 1억원 미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가구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광주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직원들이 저소득 영세노인에게 사랑의 밥퍼 행사를 펼치고 있다.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요건을 갖춘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지급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오전 남구 서2동에 위치한 '광주직업소년원 내 사랑의 식당'에서 광주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무료급식 나눔과 섬김의 실천행사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은 5년전부터 '사랑의 식당'과 결연을 통해 매년 2~3차례 걸쳐 밥퍼 행사와 함께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대한통운 인수, 포스코·CJ 대결

터미널 분리매각에 자금압박 떨어...롯데 '주춤'

올해 M&A(인수합병) 시장 최대어인 대한통운은 포스코, 롯데, CJ 중 누구 품에 안길까.

15일 M&A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포스코가 이사회에서 대한통운 본인입찰 참여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대한통운 인수전은 이제 휘슬이 울렸다.

포스코의 이번 결정은 자회사인 금호터미널 분리매각 방침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초 해운항만과 육상운송 분야의 물류 시너지 효과가 필요했던 포스코로서는 대한통운에 묶인 금호터미널을 비유 부담만 됐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이며 1조 5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치솟았던 인수가격도 분리매각으로 낮아지게 돼 자금 압박 부담도 덜게 됐다.

CJ도 물류 부문만을 필요로 했던 데다, 예비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

을 제시했던 롯데가 인수전에서 물러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대한통운 인수에 한걸음 더 다가간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통운과 금호터미널을 통해 광주는 물론 전국 유통망 장악을 구상했던 롯데는 금호터미널의 분리매각 결정으로 다소기가 꺾였다.

업계에서는 본인입찰에서 기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롯데는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은 "분리매각이라는 것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의지가 맞아야 하는 만큼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어 "대한통운 자체만으로도 인수를 시도할만한 매력"이 있다"며 "싸면 살 수 있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본인입찰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홀리데이인 광주' 특등급 호텔 인정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이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특1등급 호텔'로 인정받았다.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에 따르면 한국관광호텔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최근 현지 조사와 심사를 거쳐 홀리데이인 광주에 대해 '특1등급' 평가와 함께 인정증을 발급했다.

홀리데이인 광주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객실 205개와 대·중·소 연회장 10개, 레스토랑과 라운지,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각 분야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해 최상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주간 증시 포커스

IT업종·중국내수 관련주 대응 유효

5월 옵션만기일을 전후로 출회된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의 영향으로 KOSPI의 조정 흐름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상품가격 급락으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의 조정 양상이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과 중국의 긴축정책 지속 등 해묵은 악재와 맞물리며 낙폭을 더하고 있다.

또한 지난 금요일 금통위에서는 기준 3.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인상을 점쳤던 시장의 기대와 어긋난 행보이기는 했으나, 속도조절 차원에서의 동결일 뿐 금리 정상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분명하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다. 월초 증시 변동성 확대를 야기했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면서 이제는 바이흐로 기회를 모색할 시점이다.

최근 급락으로 일부 업종 및 종목군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및 가격 메리트가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5월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로 9000억원이 넘는 자금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수입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물부담과 지수 하락압력을 줄여주는 요인이다.

기술적으로도 KOSPI 2,100선은 지난 3월 저점 이후 반등 폭의 38.2% 되돌림 수준이자, 단기 추세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100선을 전후로 한 저점 매수 전략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하드웨어, 반도체 등 IT업종과 중국내수 관련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해 보인다. 최근 주요 업종의 하락세 속에서도 IT업종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데, 특히 하드웨어,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다시 강하게 부각되는 모습이다.

중국 내수주는 중국정부의 긴축 강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2/4 분기를 고비로 긴축의 피크를 지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부터는 위안화 절상추세와 함께 적극적인 내수 확장정책 등으로 성장모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종목군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여타 업종보다는 기존 화학과 정유 등 주도주 중심의 비중확대 전략이 수익을 제고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상장 1년 삼성생명 "수익·성장 두마리 토끼 잡는다"

삼성생명이 최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FY2010 실적 발표회'를 갖고 상장 1년을 맞아 은퇴시장과 부유층 시장, 해외시장 등을 3대 축으로 성장전략을 본격화 하는 등 비전과 성장전략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연평균 7~8% 수준의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수익성과 성장성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연납화 보험료(APE) 10%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 1분기까지 연납화 보험료는 지난해 2~4분기 평균 대비 23% 증가하는 등 실적향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3대 성장전략의 첫번째 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 은퇴 등으로 조만간 큰 성장이 예상되는 은퇴시장에 대한 공

략에 나선다.

두번째로 부유층 시장공략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우리나라 부유층 인구가 지난해 말 현재 15만명에 이르고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번째 해외사업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총 8개국에 12개의 해외 거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과

태국 등 2곳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은 현재 베이징, 톈진, 칭다오 등 3곳 외에 조기 성장을 목표로 영업거점을 확대해 2015년 8개로 늘리고 태국은 성장체질인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 한다. 또한 향후 3~5년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은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441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23 28 30 34 35	9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170,417,063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0,324,081	42
3 5개 숫자 일치	1,875,432	1,127
4 4개 숫자 일치	50,000	60,027
5 3개 숫자 일치	5,000	1,045,164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